



최성락

『학력사항』

- 광주고등학교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
-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

『경력사항』

- 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 보건복지부 대변인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국장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본부 본부장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 단장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과장
- 1989년도 제33회 행정고시 사회적 수석합격

I. 글을 시작하며

그것이 자랑스럽든 수치스럽든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구차스러운 일 입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격기를 쓰는 것은 나의 지나간 날들을 겸허하게 되돌아 보기 위함이다.

또한 나 자신 수험기간 중 여러 선배들의 합격기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高試를 새롭게 시작하는 수험생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이다.

물론 공부에는 지금길이나 최선의 방법이 있을 수 없겠지만 나의 경험에 비추어 공부방법론을 중심으로 나의 경험에 비추어 글을 쓰고자 한다.

II. 왜? 高試를...

왜? 고시를 보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당혹감이 먼저 앞서게 된다.

고시를 보게 된 동기는 내가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과 대학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처음의 대학실패로 법과대학에의 꿈은 깨어지고 경제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근대경제학이 별로 적성이 맞지 않아 1, 2학년의 대학생활이 별로 흥미롭지 못했고 학교공부에도 충실하지 못했다. 3학년이 되면서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먹었던 것이 行政高試에의 도전이었다.

물론 이것이 행시를 준비하게 된 전적인 동기는 아니었다. 3학년이 되면서부터 대학 졸업 후의 진로를 생각해 보아야만 했다. 공무원이란 직업이 결코 화려하거나 動態的인 것은 아니나 公益을 위해 公的部門에서 일할 수 있고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 지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수험기간 중 많은 고민과 회의에 부딪치게 되었다. 과연 고시공부를 하는 것이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과, 혼란스러운 학내상황에서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괴로움이었다. 어찌되었건 어차피 시작한 일이니 최선을 다해 합격하리라 다짐하고 3학년 말에 고시반에 입실하게 되었다.

Ⅲ. 수험과정

1. 제1차시험을 준비하며

제30회 제1차시험에서 시험장 분위기와 출제유형을 파악한 다음 3학년 겨울방학때부터 본격적인 제1차시험 준비에 들어갔다. 제1차 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무척 어렵고 제1차시험을 실패하면 제2차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므로 제1차시험 준비에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憲法은 별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었으나 광윤직 교수의 民法總則은 다소 어려워 이해하기 쉬운 권용우 교수의 圖解民法總則을 가지고 민총을 정리하였다. 英語는 시간을 조금씩 할애하여 틈틈히 보았다. 行政學은 학교 강의를 중심으로 하고 김규정 교수의 行政學原論과 문제집의 회독수를 늘려 갔다. 韓國史는 이기백 교수의 韓國史新論으로 국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고등학교 참고서

로 세세한 부분을 암기하였다.

1차시험 준비를 하면서 특히 기출문제에 유의하여 문제의 패턴에 맞추어 공부하려고 했다. 문제집을 공부할 때에도 단지 문제를 푸는데 신경을 쓰는 것 보다는 중요부분과 난해한 부분을 파악하여 기본서를 찾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5월말에 고시반에서 1차시험 모의고사를 본 결과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상당히 성적이 좋았다. 1차시험이 촉박해 온지라 영어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나머지 네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리라 생각하고 이에 중점을 두고 정리해 나갔다. 결과는 역시 영어 때문에 1점차로 분패하고 말았다.

4학년 2학기가 되면서 아무런 일도 해놓는 것 없이 졸업을 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 헌정과 준효와 함께 마지막 한번 만 더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사회적으로 바꾸어 새롭게 공부를 시작했다. 이때 사회직으로 바꾼 이유는 앞으로의 전망과 2차시험의 부담이 다소 적을거라는 생각에서였다.

마지막 겨울방학에는 고시반에서 실시한 社會學 특강을 수강하여 사회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였다. 이때의 社會學 공부가 2차시험을 준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같다. 올해에는 작년 패인의 영어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로 하고 양영석 선배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어려운 교재로 여러 권을 보는 것 보다는 쉬운 교재를 택해 한권의 책을 여러 번 보는 방법을 택했다. 또한 하루하루 조금씩 하는 방법을 탈피하여 석달 가량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다. 그런 결과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향상되어 제32회 1차시험 합격의 결정적인 수훈을 세웠다.

시험 전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세우고 다음 날 시험장으로 가는 길은 매우 초조했다. 불안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떨어지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불광중학교에서 1차시험을 치루고 교문을 나서는데 몹시 허탈하였다.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기대한 만큼 잘 보지 못한 것 같았다. 결과는 1점차로 합격하여 작년의 분패를 설욕(?)하였다.

2. 제2차시험을 준비하여

처음에는 1차시험을 치르고 난뒤 2차시험 공부를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발표에 대한 초조감으로 거의 진전이 없었다.

1차시험의 합격을 확인한 순간이 최종합격 때 보다도 더욱 기뻐던 것 같다.

이번에는 2차시험장의 분위기가 답안작성을 연습하기 위해 하루만 응시하기로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行政法의 시험을 보고 난 느낌은 역시 2차시험은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었다.

9월이 되어 전반적인 2차시험의 계획을 세우고 7과목 중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은 시간을 요하는 經濟學과 行政法을 12월까지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行政法은 이상규 교수저로 시작했으나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석종현 교수의 책으로 이해하고 서브노트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명구 교수의 책으로 암기하였다. 특히 行政法은 병홍이와 토론을 통해서 학설대립을 정리하였다.

經濟學은 최병권 선세임의 학원강의가 매우 유용하였고, 이때의 강의노트는 경제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다. 경제학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강의를 권하고 싶다. 미시경제학과 개념과 그래프를 중심으로 공부했으며 거시경제학은 각 학과

의 체계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行政學은 김영식문제집을 기본서로 하여 빠진 부분은 고시잡지의 예상답안과 오석홍 교수의 人事行政論, 윤재풍 교수의 組織論을 참고하여 보충하였다. 또한 김영식의 행정학의 기본문제는 한국행정의 당면과제와 행정학의 신이론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國民倫理는 형설출판사의 社會思想과 倫理를 기본서로 하고 방영준 교수의 高試國民倫理를 참고하여 개정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다. 특히 국민윤리는 세세하게 암기하기 보다는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공부를 하도록 신경을 썼다.

社會學은 김경동 교수의 현대의 사회학을 기본서로 하여 예상답안을 중심으로 단권화하였다. 사회학의 세 가지 기본적 시각을 가지고 사회이론과 현실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였다. 작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社會問題論과 社會政策論은 김영모 교수의 교재를 기본서로 택했으나 1980년대 초에 출간된 책이라 통계수치 등은 전혀 맞지 않았다. 그리하여 방통대의 社會行政을 많이 참고했고 신문, 잡지 등을 읽어 시사성 있는 문제에 대비하였다.

12월부터 고시반의 특강이 시작되었다. 석종현 교수의 行政法 강의는 행정법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출제경향, 신이론, 답안 작성요령을 터득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권호철 교수의 巨視經濟學 강의는 공급주의경제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컸고 경제이론의 한국현실과의 접목에 도움을 주었다. 그밖에 행정학, 국민윤리의 특강 또한 이제까지 공부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상당히 유용했다.

특강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권화 작업에 들어갔다. 고시잡지의 중요한 예상답안과 여러 참고서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기본서에 끼워 넣었다.

서브노트는 시간관계상 거의 하지 않기로 하고 예상문제를 중심으로 목차와 기본개념 정도를 작성하여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게 했다.

기본 4과목에 대한 특강이 끝나고 3월말에 모의고사가 실시되었다. 결과는 기대이상으로 좋았으나 아는 것과 쓰는 것은 별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답안직성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답안작성연습에 신경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

4월초에는 운동부족으로 감기에 자주 걸렸고 몸이 몹시 피곤하였다. 이때부터 산책을 식사후에는 고정적으로 하여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했고, 그날 공부했던 것을 remind하려 했다. 몹시 힘들고 지루한 수험생활에 마음의 여유를 찾고 생활의 활력소가 될 산책을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다.

6월이 되면서 날씨는 무덥기 시작했다. 도서관에 나가 공부했으나 별로 능률이 오르지 않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새로운 내용은 가급적 보려하지 않았고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을 중심으로 목차를 보면서 내용을 연상하고 목차와 기본개념을 암기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중요한 예상문제는 목차를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여 보았다.

IV. 드리고 싶은 말

1. 확신과 성실만이

고시공부를 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감의 결여이며 자신감의 결여는 계속적으로 불안과 초조를 동반하여 공부의 능률을 떨어

뜨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긴 기간의 고시공부가 힘들고 지루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삶 속에서 하루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며 보람을 찾듯이 고시 역시 성실한 생활 속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정보관리

새로이 좋은 책이 많이 쏟아지므로 신간서적이거나 개정판에 항상 유의해야 하며, 특히 行政法의 경우 최근 많이 논의되는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단권화와 서브노트

수험생이 가장 많이 보는 책과 자기가 이해하는 데 쉬운 책을 골라 공부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다. 기본서 한권을 선택하고 고시잡지의 예상답안과 참고서의 중요부분을 참고하여 단권화를 꼭 해야 할 것이다. 서브노트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므로 목차와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간략히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특강 · 모의고사 · 그룹스터디의 활용

2차시험 공부를 하는데 강의나 특강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의고사는 1차시험의 경우에도 중요하지만 2차시험의 경우는 더욱 중요하다.

직접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고 답안작성요령과 답안에 대한 채점평을 듣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그룹스터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력이 어느 정도 축적된 4~5명이 모여 토론과 모의고사 등을 통하여 함께 공부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때 주의

를 요하는 것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스테디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5. 답안작성 요령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답안에 반영되지 않으면 無用之物이다. 그러므로 고득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답안작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1)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문제 자체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그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독창적인 답안을 작성하라. 교과서의 목차를 그대로 암기하여 쓰는 것 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인 목차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3) 사회과학의 모든 문제는 현실과 이론을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4) 글씨는 깨끗하게 쓰고 가능한 한 10장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6. 건강의 유념

마지막으로 항상 강조되는 것이지만 건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건강해야 맑은 정신으로 공부할 수 있고 효율성이 크기 때문이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간단한 운동과 일주일에 한번 정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장기간의 고시공부에 유리할 것이다.

V.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수많은 고뇌와 번민을 주었던 行政高試였지만 그 기간 동안 어느 때 보다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언덕 하나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문제들이 끝없이 닥쳐오는 것을 보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이 글을 맺으며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할 분들이 생각한다. 실력이 부족한 내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의 모든 사람들의 보살핌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언제나 염려하고 걱정해 주신 외할머니, 당숙, 친지 여러분, 선후배 동료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특강, 모의고사를 위해 많은 애를 쓴 문영석 조교님과 阿龍軒(성균관대학교 고시반)실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병홍, 중환, 윤한의 건투를 빈다.

“어둠속에서 해는 빛나고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이”